

[사 - 시대와 정신 기말 보고서]

적극적 평등을 위하여

- 총균쇠, 유토피아, 관용론 -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2016*****

이은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국주의와 인류의 발전
2. 시대의 유토피아
3. 약자일 수 있는 삶

III. 결론

I. 서론

오늘 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은 무엇일까. 우리의 판단과 시각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날의 사회는 진실한 평등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차별의 방식은 무엇인가? 현 시대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앞선 몇 가지 질문들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글을 시작하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전근대 사회를 지나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왔다. 신분제 폐지가 단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혼돈 사이에 민주주의는 아주 빠르게 정착했다. 당시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 놓여있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시대를 이루는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겨넣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시대의 틀 안에 깔려 죽거나 그 안에 자신을 끼워 넣으려 시도하다 다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에는 반드시 희생되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다. 수십 년 가량 끊임없이 비슷한 아픔이 반복되었지만 시대의 혼돈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와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나 당시 사람들은 남이 조금 희생되거나 다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잘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다. 도덕과 양심의 문제, 남녀평등과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 성적 소수자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이 바로 구시대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 묵인되었던 존재들이다. 시간이 지나고 신분제가 사라진 자리에 평등과 인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언론과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이 재생산되며 사회에서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폭력과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차별로 인한 폭력이 없어진 사회를 이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알고 있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틀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 또한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 큰 행복을 위한 작은 희생이라는 낯은 생각은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정용 전기누진세 제도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민에게 그 몫을 돌리는 모습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산업재해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장면에서, 학교를 빛내줄 의대생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묵인하는 현실 등에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 그러나 구시대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보이는 모습의 평등만이 아닌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II. 본론

1. 제국주의와 인류의 발전

책 『총, 균, 쇠』에서는 ‘어째서 인류의 발전은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 되었는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다양한 예시와 많은 설명이 있지만 책에서 일관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이다. 각 대륙의 다른 발전 속도는 지적, 도덕적, 유전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 『총, 균, 쇠』가 말하는 발전과 성장은 우리에게 어떤 바를 시사할 수 있을까.

책은 인간 사회의 4가지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무리사회, 좀더 확대된 규모의 부족사회, 독점적 세습체제의 추장 사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국가로 이어진다. 이 변화양상은 인간이 가장 작은 단계라도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단계가 더 심화되고 고도화 될수록 계층과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현 시대는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발전양상은 더 고도화될수록 계층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 우리는 무언가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변화양상은 인류의 발전에서 사회의 고도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류의 발전은 무엇일까? 사실 책에서는 인류의 발전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전체적 맥락 상 저자가 물질 발전을 인류의 발전이라고 통칭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설명하고자 했던 인류의 발전이 단순히 물질, 기술적 성장일 뿐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발전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할 수 있다.

물질 성장과 인류의 성장이 같은 의미가 아님은 제국주의의 시대 전반을 보며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는 노예제도가 성행하고, 각 나라들의 광기에 가까운 이권 탐욕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대학살이 자행되던 살육의 시기였다. 차별과 폭력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계급제가 존재하는 한 그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눈에 보이는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차별의 만연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습득하게 만든 바탕의 가장 큰 뿌리는 제국주의이다. 그 착취와 폭력의 현장은 강자와 약자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거대한 사유가 되었고,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와 맞물려 누군가에게 행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는 기술과 과학 그리고 여러 이데올로기가 빠르고 집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당시의 발전 상황과 속도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기는 또한 유례없는 폭력의 시기였다. 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이의 수만 해도 2200만 명이 넘는다. 전쟁의 부상자 수, 각 나라별 내전 사상자, 노예제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의 수는 통계적으로 더 셀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제국주의 시대는 인간의 광기와 탐욕, 불완전한 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대의 끔찍한 참상과 무고한 희생자들을 본다면 물질 성장과 인류의 발전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2. 시대의 유토피아

제국주의 시대가 종말을 맞은 후로 전 세계는 자신들이 벌여놓은 비극을 보며 속고 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과 변혁들이 있었고, 전쟁과 살육전 가운데에서 빛을 잃어버린 인권과 시민의식이 다시 성장해 나갔다. 노예제도와 흑인 차별 등 가장 심각했던 직접적 폭력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과, 사회제도와 의식 성장을 통해서 현 시대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폭력의 줄기가 잠잠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 것이 아님을 안다. 여전히 제국주의에 만연했던 인종차별과 후진국 국가와 사람에 대한(후진국이라고 여기는) 폭력은 일상 사이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고, 진정한 평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성불평등과 가부장제도 아직 타파되지 않았다. 새롭게 주목받는 젠더를 주제로 한 차별의 문제도 끝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들 또한 여전히 노골적인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시대의 정당화 수단으로 쓰였던 자본주의가, 여전히 약자들을 위한 탄압의 도구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잔인한 억압도구이다.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 도를 지나쳐 심각해지는 루키즘, 시위 혹은 파업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배부른 오만으로 몰아가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16세기의 사람이다. 『유토피아』 책 내에서는 남녀 평등 교육과 종교적 관용, 약자를 위한 우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종교와 성별, 사회적 약자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차별과 관련된 사안의 선두에 있는 주제들이다. 16세기, 가톨릭 중심의 봉건적 유럽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위험할 수 있었다. 토마스 모어가 바라는 유토피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나라였다. 그것은 모어만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나라이다. 그는 유토피아가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기에 진실한 정치가로서, 신념을 위해 처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두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힘없는 이들이 겪는 해악을 막고 정의를 증진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라고 평했다.¹⁾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사회의 작은 아픔에 민감하고 평등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제도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이상향을 『유토피아』에 녹여 낼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약자와 상생하는 적극적 평등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이다. 시대엔 항상 그 시대에 이루어야 할 사명과 목적이 존재한다. 지난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싸움이였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없애는 것, 그들에겐 엄청난 도전이었고 나와 후손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과제였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약자에게 약자일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1) 박경남,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포럼, 2009, 189쪽.

3. 약자일 수 있는 삶

그렇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폭력이란 어떤 것일까. 차별과 폭력, 혐오라는 단어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 특히나 이것들 중 성소수자 문제와 미소지니(반여성적 편견) 문제는 가장 공론화되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주제들이다. 요즘 인터넷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 2002년 대선 기간 중 발생한 개혁당 성폭력 사건이 여성위 게시판에서 공론화되면서 성폭력 특위가 구성되고 당 내 가해자 실명공개 운동이 벌어지던 광경에 대해 당시 보궐선거를 앞둔 개혁당 집행위원을 맡고 있던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발언이다. 그는 당이 먼저냐, 여성의 권익이 먼저냐는 질문을 던지며 거대한 해일이라는 당 전체가 마주한 커다란 문제 앞에 성폭력 사건과 진상 조사와 개선 같은 것은 조개를 줍는 것과 같은 지엽적인 행위라고 말한 것이다.²⁾ 이런 것이 오늘날의 폭력이고 대의 앞에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처사이다. 이것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의 역사와 사회의 문제가 그 내면에 함께한다.

소수자의 고통이 조개 줍기로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약자로서의 불편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땐, 항상 약자가 아닌 개인이 당하는 역차별과 약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반박한다. 역차별 당하는 사람의 아픔도 상처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구조 앞에서 대다수가 천장에 머리를 찡고 쓰러지는 것과 비교하기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약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세상에 가난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고통 받지 않는 약자는 고통 받는 약자를 묵인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볼테르의 『관용론』의 원 제목은 ‘Traité sur la tolérance’이다. Tolérance는 한국 말로 관용으로 번역되는데 tolérance의 뜻은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관용’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Tolérance의 관용은 ‘어떤 주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실행하는 다른 주체에 대해 박해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행사를 삼가고 그 공존을 인정하는 것³⁾이다. 즉, 『관용론』에서 볼테르는 단순히 다른 종교에 대한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을 제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공존’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의 사회, 약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다.

최근 들어 나온 정이현의 신작,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책 제목을 보고 현 시대에 알맞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시대의 상냥한 폭력들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진다. 용기를 내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을 것, 소수자들의 존재와, 소수자의 이야기와 함께 공존할 것. 갑자기 모든 폭력들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들을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바탕에는 언제나 관용이 있다.

2) 「문단 내 성폭력 - "은규" 를 실험하며」, 『딴지일보』, 2016.11.07.

3) 「관용」,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256&cid=42140&categoryId=42140>.

Ⅲ. 결론

존 롤스의 『정의론』에선 무지의 베일(사회적 우연성, 지위 등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원초적 상태)을 고려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지, 최대 수혜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최소 수혜자를 최대로 배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배분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반드시 사회적 배분에 한정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우연성으로 시작점이 다른 경우는 경제 상황, 지위, 권력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약자가 되지 않는 상황 또한 우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최대의 사회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이들의 약자를 대하는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누구나 인생에서 약자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사회적 약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약자이면서 강자가 될 수 있고, 혐오를 받는 피해자이면서도 혐오를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특정상황에서 약자와 강자가 되는 모든 상황은 우연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를 위한 관용을 베풀어야한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비롯한 미숙함과 다름에 대한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진실한 평등 사회와 마주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박경남,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포럼, 2009.
- 2) 『딴지일보』, 2016.11.07.
- 3) 21세기 정치학대사전, NAVER 지식백과.
- 4) 『쿠키뉴스』, 2016.06.07.
- 5) 『뉴스민』, 2016.07.07.